

믿음의 의를 좇아 내리는 늦은비 강의

보조 도표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우주의 생명의 법칙 -- 자혜의 순환의 기본 법칙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일 4:16)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 119: 172)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롬 13:10)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보훈, 18)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흔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 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소망, 623)

자혜의 순환은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고 하셨다(요 8:28, 6:5, 7, 8).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 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소망, 20-21)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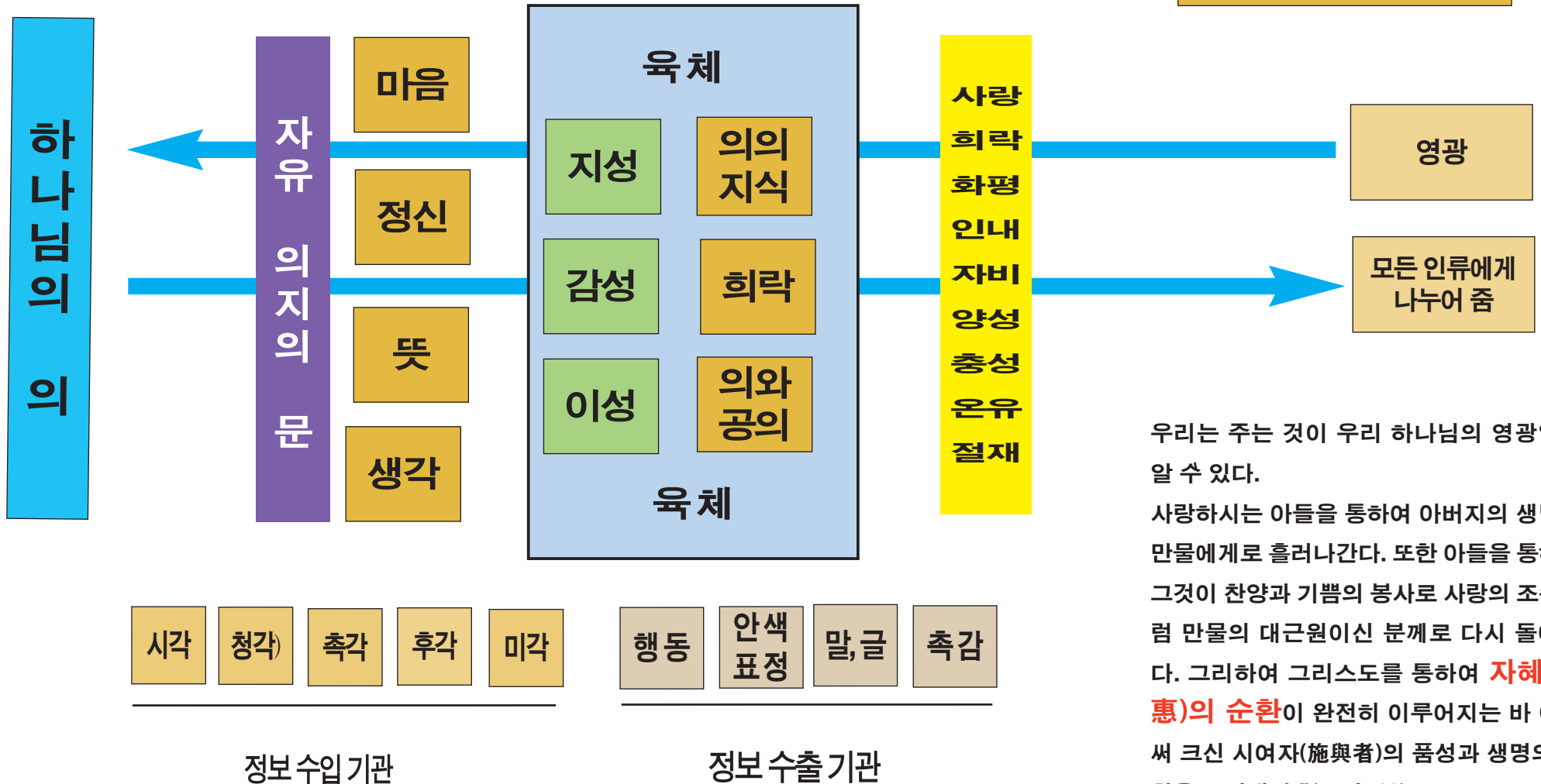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 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망, 19))

창조 - 자혜의 순환

하나님에게서 의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소망 623)

나누어주는 마음
(성령을 열매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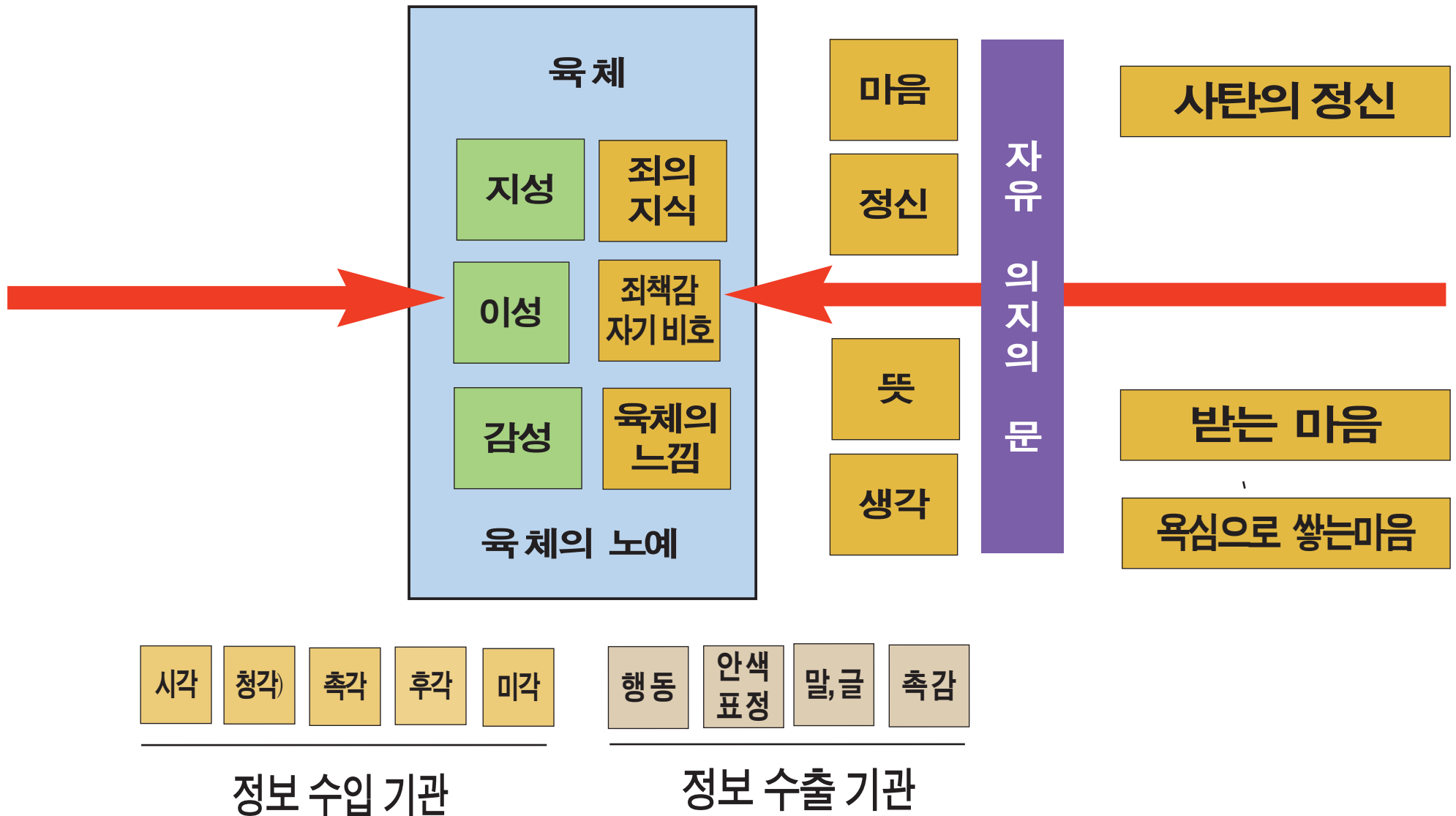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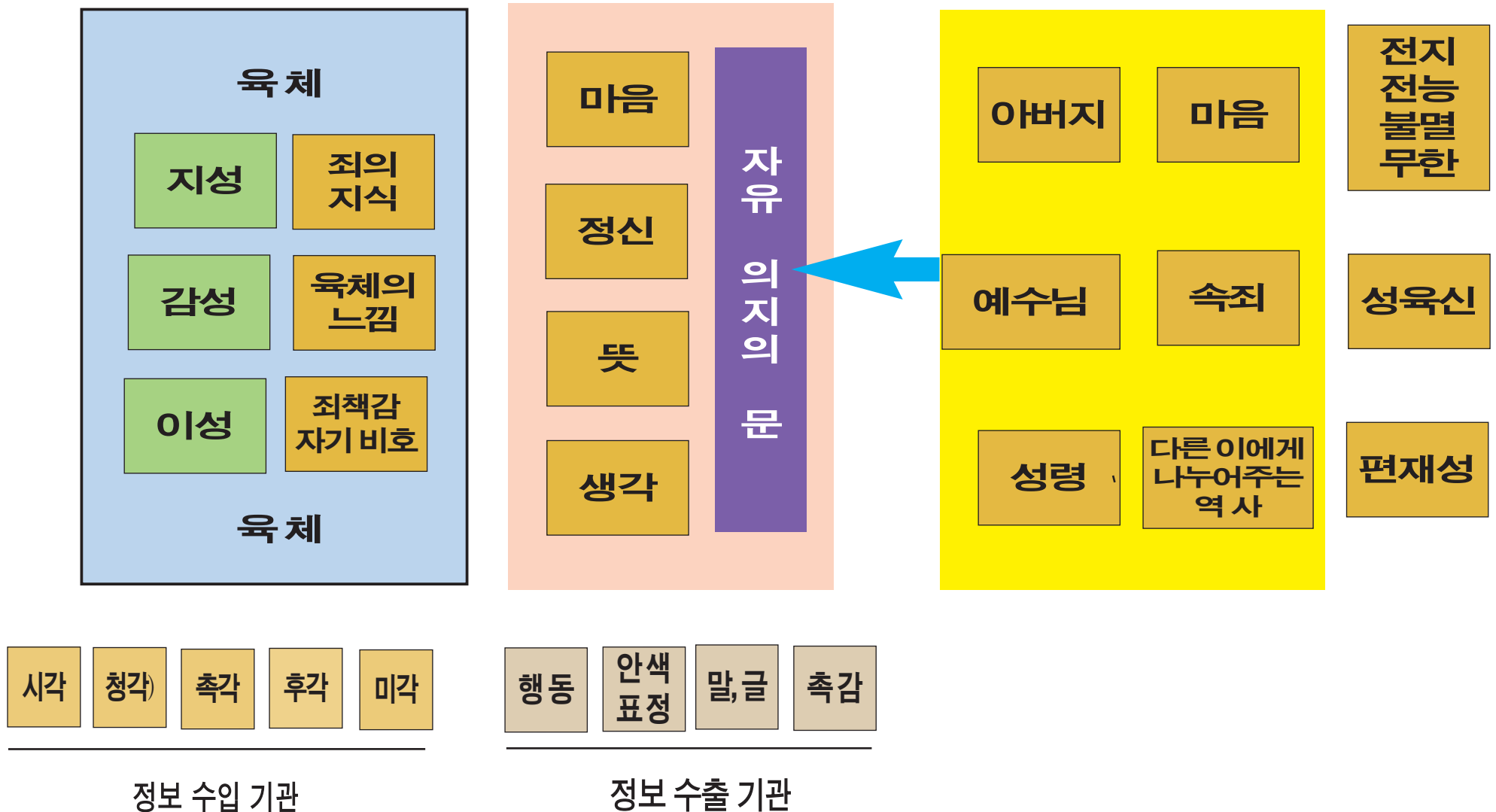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
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
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
써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과 생명의 법
칙을 드러낸다.”(소망, 20)

완전한 타락 -- 깨어진 자혜의 순환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구속의 경륜에 함께 일하시는 권세들



“우리는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전도, 617)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신 29:29).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창조주 성령을 통하여 개인 속에서 수행하신다. 성육신, 창조, 재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시키려 오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편재성을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보증의 말씀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약속을 통해 주장하셨다.

비록 그분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편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성육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이 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다. **그분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편재하기로 선택하셨다**(요 14: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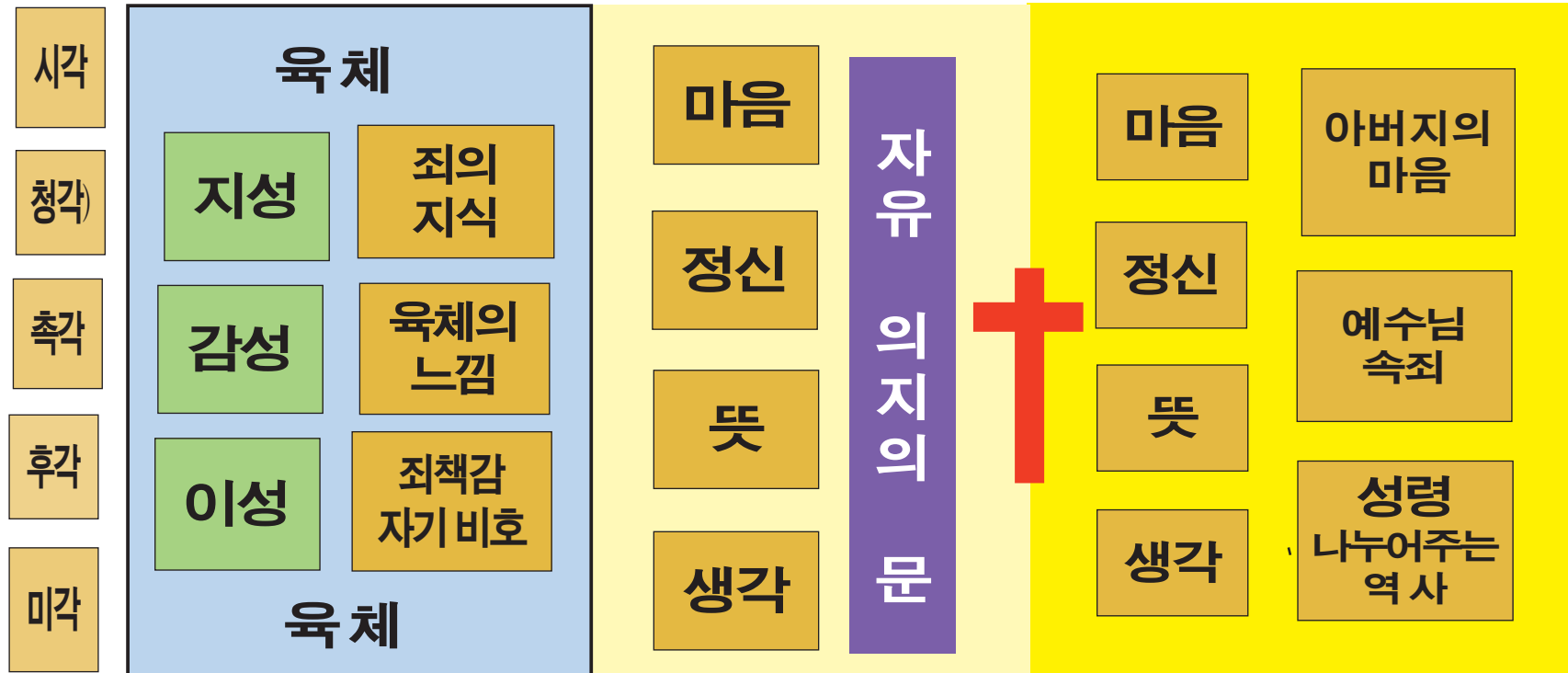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 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로 계시한다. "성령과 우리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행 15:28)와 같은 진술들은 초기 신자들이 그분을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별개의 인격체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4)라고 말씀하셨다.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성경절들은 성령을 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다(마 28:19; 고후13:14)." - 기본 교리 3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부조, 33)

하나의 정신 세계에 두 인격체의 양립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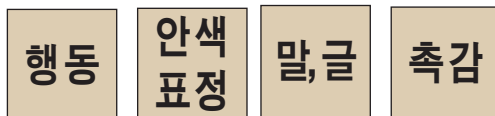


거듭난후에도 이러한 것 중 죄책감은 사라지지만 나머지 대부분 살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에 지배되어 그 힘을 상실한다. 결국 영을 통하여 모든 행동은 지배된다. 죄에 속한 지식은 죄가 도말 되면 모두 사라지고 기억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지성소에서 그분의 사역이다. 늦은비 받기전에 죄의 도말이 이루어 질 것이다(행 3:19).

연합

성령의 능력이 육을 지배한다(갈 5:16)

정보수입기관



정보수출기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는 만큼, 그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를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이 뒤따른다”(1893회보, 제11번)

양립이 가능한 증거 1 : 빌 2:13 증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빌 2:13)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Phil 2:13).

소원을 두고 행하게 :

“둘다” (both)라는 말을 사용한것(KJV에는 ‘ both to will and to do’라고 되어 있음 - 역자주)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초기의 결심을 할 자극과 그 결정을 효력 있게 만들 능력을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처분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려는 우리의 갈망을 일깨우는 자극을 제공하며,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그 결정을 효력 있게 만들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처럼 구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활용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력 작업으로 비유되고 있다”(SDA 13 주석, 142) 국문

양립이 가능함의 증거 2 : 롬 6:16-22 증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16-22)

종 : 나는 종의 마음

주 인 : 하나님의 마음(그리스도)

행하는 주체 : 너희(나)

“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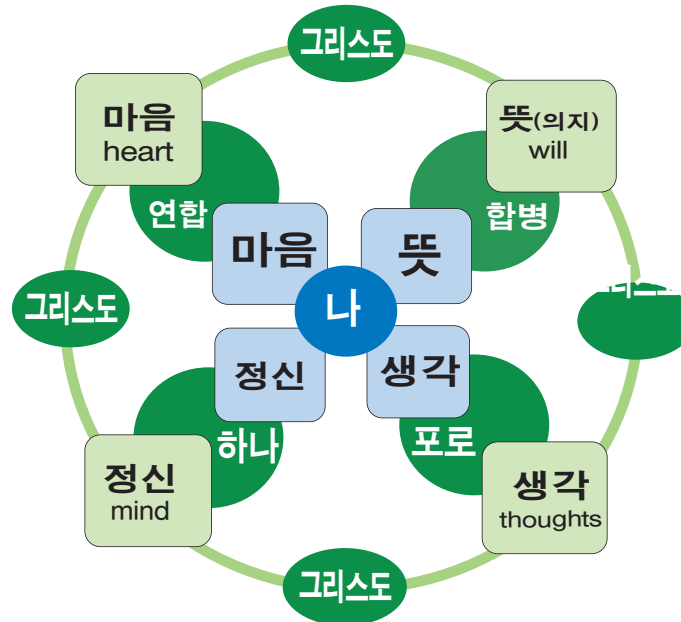
양립이 가능한 증거 3 : 예언의 신 증거

“우리는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전도, 617)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와 의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실물, 312).



“비록 그가 그분의 교훈들을 실천하고
구속하시는 그분의 멍에에 복종한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깨
달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진실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롭고 부요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 속에 떠올라

빛이 지력에 주어지며,

결심이 의지에게,

온유함이 양심에게,

순결함이 상상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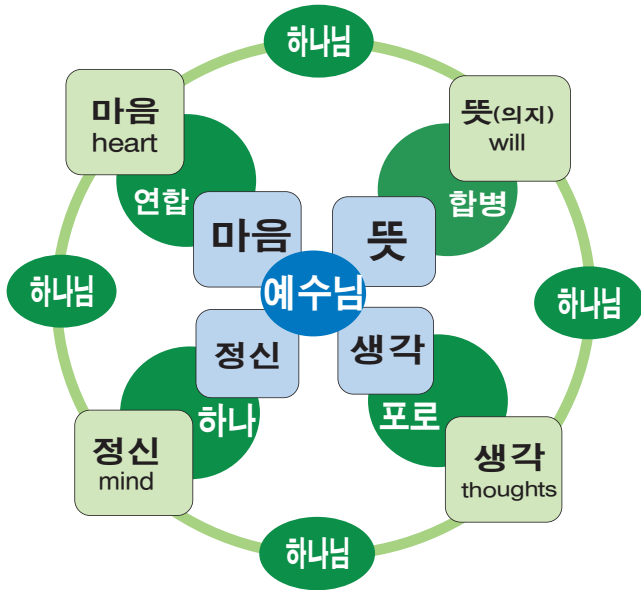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6).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지배할 수는 있다. 따라서 그대의 생애에 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가 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그대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님 안에 감춘바 되며 또한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힘과 연합하게 된다.”(청년 152)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 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5:)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30)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10:30)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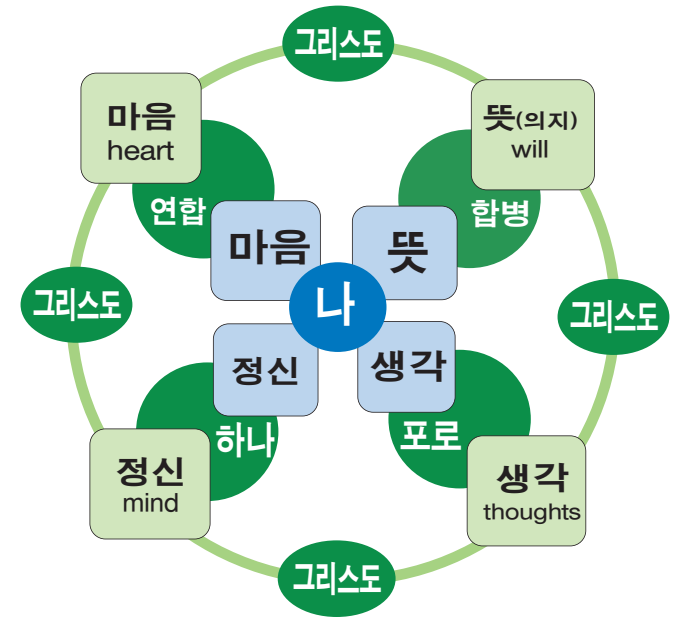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연약
성을 소유했고 우리와 모든 같았지만 그는
인성의 타락한 마음을 소유하고 태어 나지
않았다. 그는 고유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
님의 마음과 능력과 모든것을 믿음으로 받
으셔서 육신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마음은
육신을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
기신 믿음으로 쓰셔서 이긴 율법의 증거를
받은 마음이다.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악으로 기울려 지려
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예수는 자신의 의의 능력으로 자기
를 비호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의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늘의 신성들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율법을 지
킬수 있는 행위자로 만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한
다.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시지 않는 한, 우리들
은 매 발자욱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인간의 노력만으
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무가치한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와의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한다.”(1기별, 381)

예수의 믿음 창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구원과 마지막 동역자들의 정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sanctification)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우리의 구원은 입혀주신 의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품성 만이 심판을 통과 할 의다.

이것이 믿음의 의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6)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 정의

하나님의 능력에게 복종하는
겸손의 정신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누어주고자 하는 하늘의 생명의 원칙의 정신은 다른 인격들의
복리만을 위해 사는 자신이 비워진 겸손이다.

나의 의지를 매순간 주께 드리는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일평생 진행된다.
우리가 이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복종 시켜야 할 자신이 있다.

내게 채워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덕성들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
라고 겸손히 돌려드리는 정신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지 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겸손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다. 여기에 늦은비를 부을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동역자이다.
그렇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 있다.

구원에 대한 통념을 바꾸라

(정로의 계단, 71-72)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간계(奸計)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 2:20 KJV)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정로, 71-72)

이땅에서 복원된 자혜의 순환 법칙

늦은비는 나누어 주시는 의며 주님의 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소망 623)

나누어주는 마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소망, 20-21)

늦은비는 나누어 주는 의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의의 가르침을 충만히 나타내는 것이며 그때에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진다.

늦은비는 생명의 자혜의 순환이 복원되었다는 선포이다

나누어주는것들과 그 순환 법칙들속에 나누어지는 복들

사랑의 정신을 나누어줌 ---금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
평화를 나누어줌
위로, 용기, 웃음, 사랑, 오래참는것 등

물질, 말썸을 나누어줌 --- 병과 가난에 속박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를 채움

만물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행동 ----모든 만물에게 (인생은 물론 나무, 짐승, 미물들, 벌레 등 에게 까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11:)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눅 10:5-6)